

지역 소식통

부안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활동 강화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수칙 실천 확산을 위해 매주 목·금요일 하서보건지소 내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 올바른 농작업복 착용 방법 등을 안내하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감염 시 2주 이내 38°C 이상의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까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야외활동 시에는 긴팔·긴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미래 전문 인력을 기르기 위해 내달 2일까지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인원은 3주 동안 군사 훈련을 받는다. 이후 현역 입영 대상자는 3개월,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23개월 동안 농업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월 2일 오후 6시까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개발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세소식 게시판이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은 인력개발팀(☎ 063-539-626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미식관광 특화거리 조성

중기부 공모 최종 선정... 성산2길 일원에 40억 투자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 구축

고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식관광 특화거리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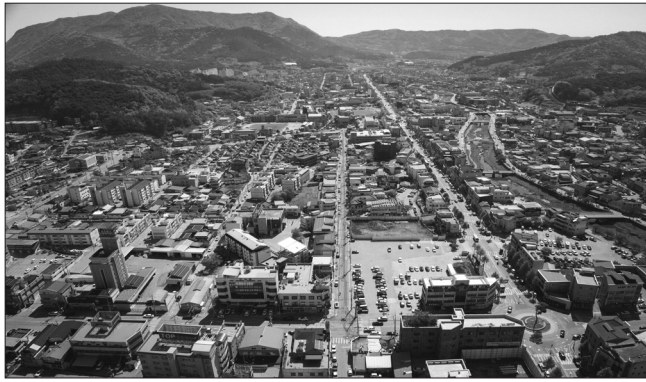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2년간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고창읍 성산2길 일원에 '고창 미식문화테마상권'을 조성한다.

고창읍 성산2길은 음식점과 카페 등 128개소가 집적된 고창대표 먹거리 상권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창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과 걷고싶은길(전선지중화, 보행환경개선이)이 진행되면서 도시 활력을 주도하는 테마거리로 뜨고 있다.

고창군은 이곳에 풍천장어·복분자·수박 등 지역 농수산물과 오랜 역사를 간직한 노포의 식문화를 활용해 고창만의 미식 콘텐츠를 개발한다.

빈 점포 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품 개발, 디지털 마케팅 강화로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주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든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한 장점을 살려, 청보리밭축제·모양성제·복분자 수박축제 등 대표 축제와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상품도 운영된다.

낮에는 축제 구성, 밤에는 고창특화 안주나 디저트가 곁들여진 맥주집이

나 카페에서 머물며 '찾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신한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로컬테마상권 10곳을 문화유산형·체험형·미식형으로 나눠 선정했으며, 고창군은 국민참여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청주·평창·강진 등과 함께 미식형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19~21일 개최

복분자·수박·풍천장어가 한자리에... 체험·판매·공연 등 풍성

고창군 대표 여름 축제인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제23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오는 19~21일(3일간)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고창의 대표 농수산물인 복분자, 수박, 풍천장어를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관광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문화 공연, 농특산물 판매 행사가 마련된다.

축제 기간 현장에서는 복분자, 수박, 장어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풍성한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 증가와 소비

자 편의를 반영해 복분자를 소포장 판매하여 가격 부담을 크게 낮췄다.

개막 첫날인 19일에는 명품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알리는 '고창 수박 품평회'가 열리며, 동리창극단의 흥부전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다현, 강진, 금청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전국 카빙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박 카빙대회가 열려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며, 신나는 음악과 함께 즐기는 물총싸움 등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도 제공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군민 체감하는 적극행정 시동건다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확정... 5대 추진방향 16개 세부과제 본격 추진

부안군은 전례 답습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올해 실행계획은 군민에게 신뢰받는 적극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장 선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혐과 △적극행정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5대 추

진방향과 16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해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체계화하여 안전 상정 전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연 1회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역대 우수사례를 한데 모은 적극행정 성과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카드뉴스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내외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과감히 줄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도전하는 적극행정은 적극 지원하고, 안일한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 본격 추진

작년 85.3톤 하천 쓰레기 수거... 호수시 부유쓰레기 선제 차단

정읍시가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약 4개월 동안 예산 5300만원을 들여 하천 쓰레기 85.3톤을 수거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기후 변화로 잦아진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물길로 흘러드는 부유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 수질 오염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환경 정비 수준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나해 거둔 성공적인 수거 성과를 발판 삼아 올해도 정읍의 소중한 물길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내겠다"며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제32차 정기회의의 성황리 개최

세계유산도시 고창 위상 높여... 한국 세계유산 보존·활용 공동사업 의결·회원도시 간 협력 강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회장도시 고창군)가 17일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원에서 제3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인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안동시장, 해남군수, 장성부군수, 창녕부군수 등 31개 회원도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세계유산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산청 관계자가 참석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계유산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는 세계유산을 보유한 31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로 회원도시간의 공동사업연구와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 창립되었다.

고창군은 고인돌 유적과 갯벌이 등재되어 일찍부터 협의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 회장도시에 선출되었으며, 2026년

도까지 연임되어 한국 세계유산도시를 이끌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한국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부스 운영 등 총 3건의 공동 사업이 확정, 하반기에 세계유산도시 정책 연구회, 유소년 한국세계유산 탐험대 운영 등 한국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동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